

미국 IFP와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독립영화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조사

A large graphic of the KOFIC logo, consisting of a solid blue square on the left and a blue rectangle on the right containing the white text 'KOFIC'. The blue rectangle has a subtle pattern of overlapping circles in various shades of blue.

KOFIC

미국 IFP 와 선댄스인스티튜트의 독립영화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조사

영화진흥위원회 미국 통신원 김수연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 년 7 월 08 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선댄스 인스티튜트 / 2

03

IFP / 13

04

선댄스 인스티튜트와 IFP의 독립영화 지원사례 / 20

05

나오는 말 / 24

1. 들어가는 글

미국에는 독립영화계를 지원하는 PBS와 ITVS, 필름 인디펜던트, 트라이베카 영화제와 같은 비영리기관이나 영화제 조직, 민간기관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IFP(Independent Film Project)와 유타주 파크시티에 기반을 둔 선댄스 인스티튜트(Sundance Institute)의 활동이 가장 돋보인다. 두 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으로 IFP는 1979년,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1981년 창립되어 독립영화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장편 극영화는 물론이고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와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독립영화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직접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아티스트가 영화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전 과정(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 그리고 투자유치와 마케팅, 배급까지)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IFP와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다양한 독립영화계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들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었던 작품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선댄스 인스티튜트

1)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설립

로버트 레드포드는 1981년 미국 영화계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독립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댄스 인스티튜트를 세웠다. 조프 킹(Geoff King)에 따르면,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코네티컷에 있는 유진 오닐 극장을 본따 만들어졌다.¹ 코네티컷주 워터포드의 바닷가에 위치한 이 기관은 신인 연극인들이 유명 연극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작품을 수정하고 작업하여 새로운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일종의 워크숍을 제공하는 극장이었다. 이처럼, 로버트 레드포드와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10명의 영화제작자들을 유타주 선댄스 리조트에 초청하여 기성 작가 및 감독, 편집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독립영화를 작업하도록 했다.

로저 에버트에 따르면² 할리우드는 당시 로버트 레드포드의 이 실험을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바라보았다. 항간에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자신만의 미니 스튜디오를 차려 독립영화계의 메이저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하지만 로버트 레드포드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보다는, 선댄스 인스티튜트가 스튜디오 시스템 밖에서 작업하는 영화제작자들을 위한 중심지가 되길 바랐다. 그는 독립영화제작자들이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좀 더 잘 다듬어진다면, 영화가 제대로 배급되어 관객과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당시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특징은 이 기관이 영화제작자들을 위한 무료 워크숍을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당시 이미 작가 워크숍은 차고 넘치는 상태였지만, 영화제작자를 위한 워크숍은 없었다. 또한 선댄스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100여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된 영화제작자들은, 선댄스 리조트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 숙박시설과 식사를 제공받으며 선댄스 인스티튜트와 기타 재단들의 지원아래 영화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2)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조직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선댄스의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부조직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있고 경영관리 및 컨설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타 자문단(Utah Advisory Board)과 디렉터스 자문그룹(Director's Advisory Group)이 있다. 창립자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사장(President)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지휘 아래 실무총괄 이사인 케리 퍼트넘(Keri Putnam, Executive Director)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모든 프로그램과 영화제, 기부 및 후원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사회 멤버로는 2014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팻 미첼(Pat Mitchell), 부의장인 잔느 도

¹ Geoff King, *American Independent Cinema*(I.B.Tauris, 2005년), p19

² *The First Sundance Workshop, 1981 : The More Things Change...*, 로저 에버트, Festivals & Awards, Rogerebert.com, 1981년 7월 5일 (<http://www.rogerebert.com/festivals-and-awards/the-first-sundance-workshop-1981-the-more-things-change>)

노반 피셔(Jeanne Donovan Fisher)와 조프리 K. 샌즈(Geoffrey K. Sands) 등을 포함하여 월트 디즈니 영화제작부문 사장인 손 베일리, 유명 디자이너인 케네스 콜, 소니픽처스 사장인 톰 로스먼 등 23명이 활동중이다. 유타자문단의 의장은 도나 그루나이흐(Donna Gruneich)가 맡고 있고 자문단 멤버로는 14명이 있고 디렉터스 자문그룹에는 공포영화로 유명한 블럼하우스 프로덕션의 제이슨 블럼 감독 등을 포함하여 6명이 있다. 선댄스 인스티튜트 실무진은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 감독하는 케리 퍼트넬의 리더십 아래 각 선댄스 영화제와 랩의 각 프로그램마다 해당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을 디렉터로 두고 각자의 프로그램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³

선댄스는 파크시티와 LA, 뉴욕시에 사무실을 두고 2015년 기준 17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1월 열리는 선댄스 영화제와 함께 선댄스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있다.⁴

3)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운영

2015년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연례보고서(Sundance Institute Annual Report 2015)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총 수입(revenue)은 3670만달러였고 총 지출(expenses)은 3650만달러였다.

총 수입중 기부나 후원에 의한 수익(contributed revenue)은 2200만달러로 총 수입의 61%를 차지했고 운영 수익(earned revenue)은 1400만달러로 38%를 차지했다. 총 지출액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78%, 일반 관리비가 16%, 개발비용이 6%를 차지했다. 기부·후원 수익 중 37%는 기업후원, 27%는 재단후원이었고 개인의 기부도 24%로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정부 후원은 10%를 차지했다. 나머지 10%는 후원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이었다. 선댄스의 운영수익 중에서는 박스오피스(선댄스 영화제 티켓수익) 수익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머천다이즈, (작품제출)수수료, 기타 서비스 등으로 얻는 수익이었다.⁵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홈페이지 지원(Support) 섹션에서는 재단과 정부는 물론, 개인후원자의 후원규모에 따라 그 이름을 명시하고 그들이 어떤 부문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재단,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언제든지 쉽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표 1] 선댄스 인스티튜트 지원 주요 재단 및 민간기업, 정부기관

구분	지원기관명
----	-------

³ About Us, Sundance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sundance.org/about/us>)

⁴ Sundance Institute Annual Report 2015

⁵ 상동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달러 이상 기부 재단 : 애너버그 재단(The Annenberg Foundation)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Melinda Gates Foundation), 모리스 마르시아노 가족 재단(The Maurice Marciano Family Foundation), 오픈소사이어티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 50만달러 이상 기부 재단 : 찰스 엔젤하드 재단(The Charles Engelhard Foundation), 앤드류 W. 멜론 재단(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 알프레드 P. 슬로언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 타임워너 재단 이외 5천달러 이상 50만달러 미만 기부재단 29개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스티튜트 파트너 : 어도비(Adobe), 아마존 스튜디오스(Amazon Studios), 디스커버리 채널(Discovery Channel), 리파이너리29(Refinery29), RT피쳐스(RT Features), 유튜브(YouTube), 자이온스은행(Zions Bank) 업계 협력사 : A&E IndieFilms, CAA, 포커스 피쳐스(Focus Features), HBO, 킥스타터(Kickstarter), 미라맥스(Miramax), 소니픽쳐스클래식 등 총 17개사 인스티튜트 어소시에이트 : BBC America, CNN Films, 컴캐스트-NBCUniversal, 디렉터스길드오브어메리카(DGA), ESPN Films, 구글, 넷플릭스 등 51개사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정부기관(25만달러 이상 지원) : 국가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유타주지사사무소 경제개발부(Utah Governor's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기타 정부기관(5천달러이상 25만달러 미만) : 국가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솔트레이크 카운티 경제개발부(Salt Lake County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파크시티 관광청 및 영화위원회(Park City Visitors Bureau and Film Commission), 예술 및 인문분과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솔트레이크시티 예술위원회(Salt Lake City Arts Council) 등 14개기관

자료출처: 「Support」, 『Sundance Institute』, 선댄스인스티튜트 홈페이지

4) 독립영화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음악, 연극, 뉴미디어, 프로듀싱, 시리즈물 등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⁶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랩(Labs), 상금(Grants), 펠로우십(Fellowship), 어워드(Awards)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 중 랩 과정은, 주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신진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해당분야 업계의 전문가들과 선댄스 인스티튜트 전문 스태프들의 멘토링과 지원하에 각자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돕는 집중 실습과정이다. 상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금과 더불어 제작자문과 리서치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펠로우십은 주로 랩 과정을 거친

⁶ 이 보고서에서는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 중 연극부문(Theatre program)은 다루지 않았다.

참가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물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의 지원이다. 어워드 수상자들은 상금과 함께 특별프로그램에의 참여기회를 얻을 수 있다.

①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그램

2002년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의 논픽션 독립 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기획, 개발 및 제작과 후반작업 및 개봉에 이르기까지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의 전과정을 지원하며 다큐멘터리 펀드를 통해 연간 1-2백만달러의 지원금을 아티스트들에게 지원한다. 최근 프로젝트로는 2011년 이집트 혁명을 다룬 <더 스퀘어 The Square>와 미국 군대내의 성폭행 문제를 조명한 <인비저블 워 The Invisible War>를 비롯하여 <더 퀸 오브 베르사유 The queen of Versailles>, <리치 힐 Rich Hill>, <더 지니어스 오브 매리언 The Genius of Marian> 등이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다큐멘터리 펀드에서는 관객참여(Audience Engagement)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관객과 커뮤니티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전략을 기획하고 캠페인을 실행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걸 모델 Girl Model>이라는 다큐멘터리는 13살의 시베리아 출신 소녀가 모델이 되고자 에이전시와 스카우터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마주친 모델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인데, 관객참여 펀드지원을 받아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미국 노동부가 아동노동에 관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내었다.⁷

다큐멘터리 필름 프로그램에는 다큐멘터리 펀드와, 펀드가 지원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랩 및 펠로우십 과정들이 있다(표2 참조).

[표 2] 선댄스 인스티튜트 주요 다큐멘터리 필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세부사항
다큐멘터리 펀드	연중접수, 40-60편, 미국 및 전세계 작품지원, 개발단계 최대 2만달러, 프로덕션/포스트프로덕션 최대 5만달러, 관객유도캠페인 최대 2만달러 지원
다큐멘터리 편집 및 스토리 랩	다큐멘터리 펀드 수령작품 중 초청에 의해 참여가능, 6월말-7월초, 랩당 4개 프로젝트 참여,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의 팀은 러프컷 공유하며 편집작업, 스토리개발팀은 스토리 구조와 캐릭터 개발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
음악 및 사운드 디자인 랩	다큐멘터리 펀드 수령작품 중 초청에 의해 참여가능, 4개 프로젝트 참여, 캘리포니아주 스카이워커사운드사의 세계 최고 시설에서 진행 중인 작품의 씬을 최고의 사운드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

⁷ 「Audience Engagement Checklist」, 『Documentary Fund』, Documentary Film Program, 선댄스 인스티튜트 홈페이지

다큐멘터리 펠로우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펀드 수령작품 중 초청에 의해 참여가능, 선댄스 페스티벌기간 내 6일간, 업계 관계자 미팅과 피칭 트레이닝, 케이스 스터디, 시사회,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석
----------------	--

자료출처: 「Documentary Film Program」, 「Sundance Institute」, 선댄스인스티튜트 홈페이지

이 외에도 다큐멘터리 필름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을 통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멘토십을 얻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다음 표 3에서 보듯 각종 재단들이 특정한 주제 혹은 분야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지원하고 워크샵과 미팅, 토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표 3] 선댄스 인스티튜트 다큐멘터리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지원재단	세부사항
Stories of Change	스콜(Skoll) 재단	2007년 런칭, 2015년에 추가로 250만 달러의 지원금을 조성하여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극영화와 뉴미디어 아티스트도 지원. 독립영화제작인과 사회적 기업가들이 함께 모여 우리 사회의 가장 억압적인 문제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
선댄스 단편영화 챌린지	빌&멜린다게이츠 재단	파괴적인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기 위해 단편영화의 힘을 빌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
CNEX 워크샵 & 서밋	CNEX	중국의 다큐멘터리 재단 CNEX와 함께, 베이징에서 10개의 중국 다큐멘터리팀을 초청, 워크샵과 서밋에 집중참여하도록 한다. 일대일 피드백 미팅과 자문단의 조언, 프리젠테이션, 토론회 등을 통해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을 장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교환을 돕는다. 매년 2만5천달러 지원.
굿 피치	브릿독(BritDoc) 재단	영국의 BritDoc 재단과 함께 선댄스 다큐멘터리 필름 프로그램은 영화제작자들과 NGO, 재단, 후원자들, 정부관계자들 및 각종 브랜드와 미디어 등을 연결,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협조하고 캠페인 개최. 지금까지 90여편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런던, 옥스포드, 뉴욕, 토론토, 요하네스버그 등에서 굿 피치 이벤트를 통해 소개.
TED 프라이즈 필름메이커 어워드	TED	빈곤과 종교, 질병과 교육 등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에 TED 프라이즈 수여, 12만5천달러 상금 제공.

자료출처: 「Documentary Film Program」, 「Sundance Institute」, 선댄스인스티튜트 홈페이지

② 장편영화 프로그램(Feature Film Program)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장편영화 프로그램은 지난 30년간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뛰어난 독립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해왔다.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까지 400편이 넘는 영화들을 지원했다. 그 중에는 최근 각종 영화제들에서 주목받은 다미엔 차젤레의 <위플래쉬 Whiplash>, 벤 자이틀린의 <비스트 오브 서던 와일드 Beast of the Southern Wild>, 라이언 쿠글러의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 Fruitvale Station>, 디 리스의 <파리아 Pariah> 등이 있었고 2016년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한 <국가의 탄생 The Birth of a Nation>과 감독상을 수상한 <스위스 아미 맨 Swiss Army Man>도 장편영화 프로그램 지원작이었다.

장편영화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랩과 펠로우십, 지원금 제도가 있다. 이들은 상당수가 영화를 두 편 이내로 제작한 신진 영화제작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나리오작가 랩에 지원하여 초청된 프로젝트들이 그대로 디렉터스랩이나 각종 펠로우십, 펀드에 지원할 우선권을 얻는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한달과정의 랩이 끝난 이후에도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제작자문단과 스태프들이 조언을 해주고 지원을 계속하는 등,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서포트는 계속된다.

랩은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이다. 선댄스 인스티튜트를 설립한 로버트 레드포드는 “랩 프로그램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선댄스 랩 자문단 중 한명인 미구엘 아르테타(Miguel Arteta) 감독은 “미국 독립영화 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 무렵에는 내밀하고 솔직한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선댄스 인스티튜트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라고 말한다.⁸ 그리하여 이 랩을 거쳐간 작품들 중에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 존 카메론 미첼의 <헤드워>, 킴벌리 피어스의 <소년은 울지 않는다>, 월터 살레스의 <중앙역> 등 참신한 작품들이 많다.

랩은 시나리오 과정과 감독, 프로듀싱, 편집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보통 시나리오작가랩을 통해 발탁된 작품들이 디렉터스랩과 편집랩에 초청받아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표 4] 선댄스 인스티튜트 장편영화 프로그램 - 랩

프로그램명	제공사항
시나리오작가랩	1월, 6월에 각각 6일간 진행, 각 12개 프로젝트 지원, 첫번째나 두번째 장편영화 작품을 만드는 작가만 지원가능, 기성작가와와의 일대일 스토리세션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을 얻음
디렉터스랩	5월말-6월말, 한달간 진행, 시나리오작가랩 참가작품 위주 초청, 8개 프로젝트 지원, 중요장면을 리허설하고 촬영, 편집하며 제작자문단 및 스태프들에게 자문과 각종 지원

⁸ 선댄스 인스티튜트 홍보영상 인용

	을 받음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랩& 펠로우십	랩은 8월에 진행하며 펠로우십은 그 후 1년내내 지원제공. 지원자는 2편 이내의 영화를 제작한 신진 제작자여야 함. 1만달러의 지원금과 영화산업계 전문가 2명의 멘토십제공, 선댄스 스태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프로듀서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
편집 집중랩	6월중, 1주간 진행, 2개 프로젝트 초청, 첫번째나 두번째 작품의 후반작업단계에 있는 제작자만 지원가능

자료출처: 「Feature Film Program」, 「Sundance Institute」, 선댄스인스티튜트 홈페이지

장편영화 펠로우십과 펀드는 그 지원분야가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오픈 어플리케이션 펠로우십에는 알프레드 P. 슬로언 커미셔닝 그랜트&펠로우십이 있다. 이는 과학 및 기술 주제의 영화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중 상금(Grant) 수여자에게는 매년 현금 2만달러와 함께 리서치 및 과학자문비용 5천달러, 제작 자문위원 및 선댄스 인스티튜트 스태프들의 지원을 제공한다. 펠로우십 수여자에게는 프로젝트 개발비로 1만달러, 과학자문 비용 5천달러,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각종 랩과 펠로우십에 참여할 기회 제공 및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스태프들의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외의 펀드들은 모두 장편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매년 4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한다. 선댄스 인스티튜트에서는 세분화된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들이 기획개발, 제작 및 후반작업단계와 배급, 마케팅 등 단계마다 찾아오는 중요한 고비를 넘겨 영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각종 재단들이 파트너가 되어 필요한 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필름투(FILMTWO) 이니셔티브&펠로우십이다. 이는 두번째 장편 극 영화를 제작하는 작가/감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월 시나리오작가 랩을 거친 아티스트 중 4-5명의 작품을 지원하는데, 각 펠로우는 5천달러의 개발비를 지원받고 작가 집중과정에 참여하며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조언을 얻고 워크샵에서는 두번째 영화를 제작하며 부딪히는 어려운 점들을 검토한다. 그 이후에도 1년 내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지속된다. 각본 초고와 러프컷에 대한 피드백부터, 잠재적 투자자와 후원자, 기타 서포트 프로그램에 추천레터를 보내거나 전략적으로 피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댄스측의 조언과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선댄스 시나리오작가랩이나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서밋 등의 다양한 랩과 활동에 초청받게 된다.

[표 5] 선댄스 인스티튜트 장편영화 프로그램 - 펠로우십 및 지원금

지원형태	펠로우십	상세내용
------	------	------

오픈 어플리케이션 펠로우십 (누구나 지원가능)	알프레드 P. 슬로언 커미셔닝 그랜트& 펠로우십	과학 및 기술 관련 주제로 영화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금과 펠로우십 기회 제공
장편영화 펀드 : 상금 & 펠로우십 *장편영화 랩프로그램 참가자만 지원가능	필름투 이니셔티브&펠로우십	두번째 극영화 제작하는 작가/감독에게 5천달러의 개발비 와 더불어 맞춤식 프로그램을 제공
	타임워너 펠로우십	다양하고 독특한 신진 스토리텔링 작가에게 6천달러 지원
	돌비패밀리사운드 펠로우십	후반작업(특히 사운드디자인) 관련 다양한 지원
	NHK 어워드	영화계 미래에 기여할 신진 영화제작자에 1만달러 상금 및 각종 지원 제공
	글로벌 필름메이커 어워드	4명의 미국 외 지역 신진 독립영화 제작자에게 1만달러 상 금과 인더스트리 미팅, 랩참여 등 기타 지원 제공
	프로듀서 어워드	선댄스영화제에서 프리미어 갖는 픽션/논픽션 영화 제작자 들에게 1만달러 상금 수여
	메릴랜드 필름 펠로우십	메릴랜드주 영화사무소와 파트너십, 1만달러의 지원금으로 기획개발 및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작품 지원
	기타 펠로우십 및 지원금	RT피쳐스 펠로우십, 아시안계 미국인 펠로우십, 라티노 펠 로우십, 애드리언 셸리 파운데이션 여성영화제작자 지원금, 린 아우어바흐 시나리오작가 펠로우십, 마크 실버만 프로 듀싱 펠로우, 지그문트&오드리 윌프 파운데이션 어워드, 샬리 멘케 메모리얼 에디팅 펠로우십 등

자료출처: 「Feature Film Program」, 「Sundance Institute」, 선댄스인스티튜트 홈페이지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미국 외에도 이탈리아, 요르단, 터키, 인도, 일본 등에서 시나리오 작가 랩을 운영중이다. 이 외에도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연중상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매년 시나리오작가랩이나 디렉터스랩에서 제작중인 6편 정도의 작품 대본을 전문배우들이 리딩하는 대본정독시리즈(Screenplay Reading Series)와,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의 작품의 러프컷 스크리닝을 하고 자문단들이 개별미팅과 피드백을 해주는 러프컷 스크리닝 이니셔티브(Rough-Cut Screening Initiative) 등이 눈에 띈다.

③ 영화음악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매년 여름 영화음악 및 사운드디자인랩을 개최한다. 공개지원과정

을 통해 선발된 영화음악작곡가는, 다큐멘터리 및 장편영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영화제작자들과 팀을 이뤄 공동작업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조지 루카스가 세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운드 작업실인 스카이워커 사운드社와 파트너십을 맺고 캘리포니아의 스카이워커 작업실에서 진행된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사운드 전문가들과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것부터, 사운드 디자인과 편집, 폴리, 믹싱 등의 작업을 최고의 시설과 장비로 경험할 수 있다. 또 참가자들은 실내 관현악단과 함께 녹음작업을 하는 드문 경험도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장편영화 영화음악 랩은 2016년 7월 7일-21일의 일정으로 6개 작품을, 다큐멘터리 영화음악 랩은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일정으로 4개 작품을 지원한다.

④ 뉴프런티어

이 프로그램은 영화와 순수예술, 미디어, 공연, 음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디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2007년 창설된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뉴프런티어 전시는 해마다 선댄스 영화제에서 픽션과 논픽션, 설치미술과 공연 및 영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스토리텔링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VR이 화두로 떠올라 각종 플랫폼들-오кул러스 리프트, 삼성기어, 구글카드보드, HTC Vive 등-로 도심 비행체험을 하는 등의 쇼케이스가 인기를 끌었다.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영화제에서의 전시 외에도 뉴프런티어 랩과 프로그램을 통해 아티스트들을 지원한다.

뉴프런티어 스토리 랩은 2016년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렸고 전세계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6개 프로젝트를 지원받았다. 영화, 게임, 연극, 음악, 비주얼아트, 코믹스, 문학, 디자인, 웹과 모바일, 네이티브아트 등 모든 매체의 픽션/논픽션/하이브리드 프로젝트가 모두 지원가능했으며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으로 스토리 구성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나, 기술적 혁신은 많지 않아도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였다.

뉴프런티어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뉴프런티어 랩에 참가했던 아티스트들을 후원 조직과 연결시켜 조직내부의 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인 뉴프런티어 데이랩을 통해 참가자들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법을 탐구하고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⑤ 네이티브 아메리칸 및 토착민 영화

선댄스 인스티튜트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및 태평양 섬지역과 알래스카 지역 토착민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한다. 단편영화 랩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며 토착 아티스트들이 단편영화 각본을 기획, 개발하는 데 있어 자문단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네이티브 영화제작자 랩은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열리며 2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슈퍼바이징 프로듀서와 멘토 디렉터의 지도하에 영화를 처음 만드는 제작자들의 단편영화 제작과정을 지원한다. 풀 서클 펠로우십은 W.E.켈로그 재단이 후원하며 미시건주와 뉴멕시코주의 커뮤니티에서 선발된 네이티브 아메리칸 청년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4명의 참가자는 선댄스

영화제 및 네이티브 단편 프로덕션 랩에 참가할 수 있다. 타임워너 네이티브 프로듀싱 펠로우십에서는 지원금과 함께 선댄스영화제 및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서밋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⑥ 에피소드 스토리텔링

지난 5년간 케이블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리즈물의 콘텐츠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에피소드 스토리텔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러한 콘텐츠 제작을 연마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선댄스 인스티튜트에서는 랩과정에 이은 1년간의 지원을 통해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자 한다.

에피소드 스토리랩에서는 10명의 작가들에게 장편 에피소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작가들은 유명 기획자들과 프로듀서, 스튜디오/네트워크 임원들과 미팅을 갖고, 자신의 영화를 전략적으로 소개하는 피칭세션에 참가하며, 작가 공동작업실과 그룹토의에 참가하여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유튜브와의 협력하에 선보이는 유튜브 뉴보이스 랩에서는 10명의 크리에이터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에서 선보일 짧은 형태의 에피소드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랩은 LA의 유튜브스페이스에서 3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크리에이터, 기획자 및 프로듀서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자신들의 스토리를 혁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발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집중대본작성 워크샵과 일대일 크리에이티브 스토리미팅, 작가 공동작업실, 디지털 시대의 제작/후반작업 및 마케팅에 관한 그룹토의에 참여한다.

이들 참가자들은 개별작품에 최적화된 지원을 1년간 받게 되며, 에이전트와 매니저, 변호사와 기획자,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와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네트워크와 디지털 플랫폼들 및 선댄스 인스티튜트 기존 참여자들로부터 제작에 관한 전략적인 조언들을 받게 된다.

⑦ 아티스트서비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화 편딩과 마케팅, 배급 등 영화제작 이외의 과정을 지원한다. 2011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런칭한 이 과정은 다양한 파트너 및 톨과 리소스들을 활용하여 200여명의 아티스트들을 관객과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아티스트서비스와 프리미어는 퀴버(Quiver)라는 온라인 배급지원 사이트를 공개했다. 이 인터페이스는 언제 어디서 개봉할지, 얼마의 가격으로 제공할지 등의 배급 과정의 결정을 매우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프리미어가 주요 디지털 플랫폼들과 직접 배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선댄스 인스티튜트 지원작들은 iTunes나 넷플릭스, 아마존 등에 영화 판권을 공급할 때 사전 조율된 조건으로 배급계약을 맺을 수 있다. 퀴버를 통해 개봉한 첫 영화로 찰스 포에켈의 장편 데뷔영화 <크리스마스 어겐 Christmas, Again>이 있다. 201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가진 이 영화는 2015년 12월 4일 일부극장과 디지털 플랫폼들에서 개봉했다. 아티스트 서비스와 퀴버의 계약에 의해, 영화제작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수익의 100%

를 가져갈 수 있었다.⁹ 이 밖에도 아티스트서비스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starter)와도 파트너십을 맺어 200편 이상의 영화들이 프로모션 지원을 받으며 펀딩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⑧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에서는 1년간 랩과 펠로우십, 지원금과 멘토십 등을 통해 프로듀서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문제해결 기술을 다듬고 발전시켜 그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랩은 장편영화와 다큐멘터리, 네이티브 세대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서밋에서는 영화제작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한편, 업계의 책임자들을 만나며 피칭, 제작, 투자 및 개봉에 필요한 전략을 개발하는 시간을 갖는다.

⑨ IGNITE

이 프로그램은 18-24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영화계를 체험하게 해주고 아티스트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어도비 프로젝트 1324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IGNITE 티켓패키지, IGNITE 펠로우스 프로그램, IGNITE ON TOUR 등을 제공한다. 티켓패키지는 선댄스 영화제 시사회 참석 및 업계 관계자와 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자들과의 만남 등을 제공한다. 협력기관의 추천에 의해 참여가능한 펠로우스 프로그램은 젊은 영화제작자들에게 영화산업계에서의 경험과 업계 전문가와 멘토십 맺을 기회 및 선댄스 인스티튜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IGNITE ON TOUR는 대학캠퍼스와 커뮤니티센터 등을 돌며 시사회와 토론회, 워크숍, 랩, 케이스스터디 등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⑩ 이니셔티브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이니셔티브에는 투자를 지원하는 CATALYST, 여성영화인을 지원하는 선댄스의 여성들, 그리고 다양성 이니셔티브가 있다.

- CATALYST : 전세계의 독립영화인들을 혁신적인 투자자들과 연결시켜준다. 초청에 의해 운영되는 CATALYST 포럼은 2016년 9월 18일-21일에 선댄스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35명의 투자자들에게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프로그램 디렉터들이 선정한 10개의 유망한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제작한 팀을 소개한다. 3일동안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소개와 케이스 스터디, 라운드테이블 토론, 인더스트리 세미나, 특별시사회와 대담 등을 통해 영화투자의 리스크와 예상수익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망하고 새로운 독립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선댄스의 목표다.

⁹ Artist Services, 선댄스인스티튜트 2015년 연례보고서, 30페이지

- 선댄스의 여성들 : 여성 아티스트들에 대한 물적지원과 더불어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들이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성영화인들이 파이낸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리서치와 공공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다양성 이니셔티브 : 다양한 커뮤니티와 문화, 언어,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선댄스 인스티튜트에서는 타임워너 펠로우십 프로그램, 아시안 아메리칸 펠로우십, 라티노 작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3. IFP (Independent Film Project)

1) IFP의 설립

IFP는 원래 Independent Feature Project의 약자로 1979년에 독립영화 프로듀서인 샌드라 숄버그(Sandra Shulberg)가 60년대의 급진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아 설립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독립영화 지원기관이다. 당시 숄버그와 함께 IFP를 창립한 이사회 멤버였던 워링턴 허들린(Warrington Hudlin)은 할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그 때 미국 영화계에서는 할리우드와 전혀 다른 정서를 지닌 존 카사베츠, 바바라 코플, 롭 날슨 등의 아티스트들이 떠오르고 있었고 이들과 함께 미국 독립영화운동이 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독립영화를) 관객들과 이어줄 기관을 필요로 했다."¹⁰ 독립영화 운동은 이를 뒷받침하는 인디 배급사와 영화제 및 지원기관 등 산업적 기반이 조성되며 꽃을 피우게 된다. 우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는 사무엘 골드윈, 캐슬힐, 아일랜드/얼라이브, 시네컴, 퍼스트런 피쳐스와 같은 신생 소규모 배급사들이 등장했다. 더불어 1979년에 방송사 PBS는 독립영화들에 제작비 지원을 시작했고, 같은 해 뉴욕영화제의 한 부문으로 IFP가 선보이게 되었다.¹¹

원래 뉴욕영화제는 주로 외국의 예술영화들, 즉 프랑스의 누벨바그나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영화, 독일의 뉴저먼시네마 등을 주로 상영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1979년 샌드라 숄버그에 의해 미국 독립영화 회고전이 열리면서 로버트 영의 <아람브리스타 Alambrista>, 리차드 피어스의 <하트랜드 Heartland>, 헤일리 제리마의 <부시 마마 Bush Mama> 등 미국

¹⁰ New York : IFP 30th anniversary, Andrew O'Hehir and AP, 할리우드리포터, 2008년 9월 14일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new-york-ifp-30th-anniversary-119137>)

¹¹ Geoff King, American Independent Cinema(I.B.Tauris, 2005년), p20 (I.B.Tauris, 2005년)

독립영화들이 선보일 수 있었다.¹² 샌드라 솔버그는 영화제와 동시에 IFFM(Independent Feature Film Market) 및 영화제작자들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마켓에서는 워싱턴 허들린이 제작하고 감독한 <스트리트 코너 스토리즈 Street Corner Stories>와 마사 쿨리지(Martha Coolidge)의 <낯 어 프리티 픽처 Not a Pretty Picture> 등의 20개의 완성된 장편영화들을 초청하여 유럽 및 기타지역의 바이어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¹³ "스튜디오에서는 절대 제작될 수 없는 영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원하는 관객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던 IFP의 창립멤버들은 "하나의 예술적·정치적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을 탐색하고 표현할 자유를 주창하는 것이 미국 독립영화운동"이라고 생각했다.¹⁴

1980년에 정식으로 조직을 창설하고 출범한 IFP는 1991년에 제1회 고담영화제를 개최한다. 92년에는 필름메이커 매거진을 런칭하고 2004년에는 칸느 영화제의 칸느 프로듀서 네트워크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다. 2006년에는 부산영화제의 PPP(Pusan Promotion Plan)와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2008년에는 IFP의 마켓을 인디펜던트 필름위크(Independent Film Week)로 명칭을 바꾸었다.¹⁵

2) IFP의 조직

회원제로 운영되는 IFP는 뉴욕에서 설립된 이후 LA, 시카고, 마이애미, 미니애폴리스 등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사를 설립했고 2002년에는 IFP/시애틀을 추가하여 미국에 6개의 지사를 운영하다가 2005년 LA지부가 독립해나가 현재는 5개의 조직이 운영중이다. 1999년 엠마누엘 리바이(Emanuel Levy)의 책 <Cinema of Outsiders>에 의하면 당시 IFP는 5개의 지부에 총 8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¹⁶ 연간 200만 달러의 예산(이중 130만달러가 기업체 후원)을 운용하는 큰 조직이 되어 있었다. IFP가 매년 개최하는 고담 영화제는 Bravo, CAA, 폭스 서치라이트, 미라맥스, 애플루트보드카와 같은 대형 스폰서들의 후원을 받았다.¹⁷

2002년에는 당시 1만명의 회원을 둔 이 6개의 조직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총괄사장을 영입했으나 각기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달라 실패했다. 2005년에는 당시 6300여명의 회원을 가진 가장 큰 지사였던 IFP/LA가 독립하여 필름 인디펜던트(Film Independent)로 별도 조직을 설립했다.¹⁸ IFP/뉴욕은 2005년 기준으로 2천명, 기타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등의 지사

¹² Thirty Something : Independent Film & IFP Evolve. But, What's Next?, Eugene Hernandez, 인디와이어, 2009년 9월 18일(<http://www.indiewire.com/2009/09/thirty-something-independent-film-ifp-evolve-but-whats-next-246477/>)

¹³ IFP market : Timeline, 버라이어티 스탭, 버라이어티, 2008년 9월 5일 (<http://variety.com/2008/scene/markets-festivals/ifp-market-timeline-1117991761/>)

¹⁴ Thirty Something : Independent Film & IFP Evolve. But, What's Next?, Eugene Hernandez, 인디와이어, 2009년 9월 18일(<http://www.indiewire.com/2009/09/thirty-something-independent-film-ifp-evolve-but-whats-next-246477/>)

¹⁵ 상동

¹⁶ Emanuel Levy, *Cinema of Outsiders*(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p48

¹⁷ Emanuel Levy, *Cinema of Outsiders*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p47

¹⁸ Thirty Something : Independent Film & IFP Evolve. But, What's Next?, Eugene Hernandez, 인디와이어, 2009년 9월 18일(<http://www.indiewire.com/2009/09/thirty-something-independent-film-ifp-evolve-but-whats-next-246477/>)

들은 1천명 내외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각 지사들은 지역 회원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다른 IFP 지사들과 웹사이트(<http://www.ifp.org>)만 공유하는 느슨한 연합체가 되었다.

그중 IFP/뉴욕은 2016년 현재, 잡지(필름메이커매거진)와 마켓과 포럼(필름워크/랩), 시상식(고담어워드)과 미디어센터(메이드인뉴욕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미디어센터와 고담어워드의 스태프들, 그리고 필름메이커의 필진 등은 별도의 인력들로 운영되고 있다. IFP/뉴욕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사회는 13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이터널 선사인>, <비긴 어게인> 등을 제작한 프로듀서 앤서니 브레그먼(Anthony Bregman)이 맡고 있다. IFP/뉴욕의 스태프는 총 14명으로 프로그래밍, 재무, 광고, 후원, 대외문제 담당부서로 나뉘어 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필름메이커 편집장 및 발행인도 포함되어 있다. 조직의 수장은 독립영화 프로듀서인 조안나 비센테(Joana Vicente, Executive Director)로, 2009년부터 총괄이사를 맡고 있다. 이 외에 IFP의 랩 프로그램에서는 업계의 전문가들을 랩 리더(lab leaders)로 초빙하여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필름워크에는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등 운영에 있어 외부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3) IFP의 필름워크

IFP는 올해에는 9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뉴욕시에서 필름워크를 개최한다. 원래 IFP마켓이었다가 이름을 바꾼 필름워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독립영화마켓이다. 필름워크에서는 프로젝트 포럼, 컨퍼런스, 페스티벌 포럼의 이름으로 IFP가 지원한 프로젝트들을 선보이는 기회를 갖는다.

①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포럼에서는 매년 130여개의 제작중인 프로젝트들을 투자자 및 스튜디오 임원, 뉴미디어와 각종 플랫폼의 책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상업적인 작품들부터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주제의 작품들까지, 극영화부터 시리즈물과 트랜스미디어 콘텐츠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하는 아티스트들은 이 곳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고 관객과 만나며 커리어를 지속해나갈 수 있다. 아티스트와 업계관계자들의 미팅위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포럼은 크게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장편 극영화 부문인 “노 보더스(No Borders)”와 다큐멘터리 부문인 “스포트라이트 온 다큐멘터리(Spotlight on Documentaries)”가 그것들이다. 이들 부문에서는 매년 5월까지 요건에 맞는 프로젝트들의 지원을 받고, 이들중 적절한 작품을 선정하여 9월에 열리는 필름워크의 쇼케이스를 통해 선보인다. “노 보더스” 부문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포맷과 제작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을 받는데 주로 제작 초기단계의 작품 중 투자나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표 6] IFP 프로젝트 포럼 노 보더스(No Borders) 부문

포맷	세부부문	지원자격
----	------	------

장편 극영화	미국/ 초기기획개발단계	투자확정금액이 전체 제작비의 20% 이내인 작품, 미국내 활동 제작자에 한함
	미국/ 후기기획개발단계	투자확정금액 20% 이상인 작품, 프로듀서가 확정되어야 하며 프로듀서는 미국내 활동하는 자여야 하며, 한편 이상의 극영화 극장개봉 크레딧이 있어야 함
	미국외/ 후기기획개발단계	투자확정금액 20% 이상인 작품, 미국외 전세계 지역 장편 극영화 대본 중 선정 IFP의 프리젠틱 파트너들을 통해 지원받음
시리즈	단편시리즈	미국 및 전세계 작품 대상, 웹/TV/앱을 통해 배급될 에피소드당 15분 내외의 짧은 시리즈물, 필름워크 이전 런칭이나 판매는 불가
	장편시리즈	미국 및 전세계 작품 대상, 20-60분 사이의 장편 시리즈물, 필름워크 이전에 프리미어 상영을 갖거나 판매되어선 안됨.

자료출처: 「Project Forum」, 「Independent Film Week」, IFP 홈페이지

다큐멘터리 부문인 “스포트라이트 온 다큐멘터리”에서는 투자초기단계의 기획개발 작품부터 후반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완성직전의 작품들까지 다양한 단계의 60여편의 프로젝트들을 선보인다. 단, 완성된 작품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제작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미국 외 지역의 영화제작자가 출품하려면 IFP의 프리젠틱 파트너에 의해 초청받아야 한다. 선정된 영화제작자들은 투자 및 배급 파트너들과 일대일 미팅을 갖고 영화제 프로그램과 즉석미팅도 가질 수 있다. 또한 비공개 다큐멘터리 이벤트들과 영화제작자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표 7] IFP 프로젝트 포럼 스포트라이트 온 다큐멘터리(Spotlight on Documentaries) 부문

포맷	지원자격
다큐멘터리 장편	52분 이상의 장편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시리즈-장편	에피소드당 22분 이상, 2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는 시리즈
다큐멘터리 시리즈-단편	에피소드당 15분 이내, 3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는 시리즈

자료출처: 「Project Forum」, 「Independent Film Week」, IFP 홈페이지

② 스크린 포워드 컨퍼런스

IFP의 필름워크 기간에 함께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서는 6일동안 기조연설, 토론회, 케이스스터디, 스페셜 이벤트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2015년에는 “스토리 산업(The Story Business)”, “새로운 내러티브(New Narratives)”, “진실을 기록하기(Documenting Truth)”, “아이디어와 영향력있는 사람들(Ideas and Influencers)”, “책임자와의 만남(Meet the Decision

Makers)” 등의 이름으로 일정이 꾸며져 투자유치와 피칭의 기술, 업계전문가 및 책임자와의 만남과 대담 등이 진행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SAG Indie와 HBO 다큐멘터리 필름의 후원으로 열렸다.

③ 페스티벌 포럼

역시 필름위크 기간에 함께 열리는 이 포럼은 2010년 창립되었다. 베를린, 칸느, 로테르담, 선댄스, 핫독스, 뉴욕필름페스티벌, SXSW 및 트라이베카 등 전세계 200개 이상의 영화제 프로그래머들과 임원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해내고 교류하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페스티벌 포럼에 참가하면 160개 이상의 작품의 정보를 좀 더 일찍 접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영화제 인력 및 아티스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포럼 온라인에 접속하여 신작들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영화제 운영과 관리, 마케팅 등에 대한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

4) IFP의 랩 프로그램

IFP에서는 필름메이커스 랩과 스크린포워드 랩을 운영하고 있다. 필름메이커스 랩은 타임워너 재단의 후원으로 연중 상시 운영되는 멘토십 프로그램으로 장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를 처음 만드는, 후반작업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감독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화를 완성하고 마케팅하며 배급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주로 저예산(1백만 달러 미만) 장편 영화들에 초점을 맞춰 영화 개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시리즈물을 제작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지원은 IFP 스크린포워드랩에서 제공한다.

필름메이커스 랩의 연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에 지원을 마감하고 4월에 선정작품을 발표한다. 5월에는 다큐멘터리랩과 극영화랩을 각각 5일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업계전문가들과 함께 편집, 색보정, 사운드디자인 등의 부분을 주로 다룬다. 여름동안, 랩 참가자들은 예비 피칭 자료들(로그라인, 스틸, 영상클립 등)을 IFP 프로그래밍팀과 랩 리더에게 보내고 랩은 이들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필름위크 참가 이전의 준비과정으로서 진행된다. 이렇게 준비과정을 거쳐 9월에 랩 참가자들은 모두 인디펜던트 필름위크에 초청되어 배급사, 세일즈사, 투자자, 영화제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업계관계자들을 만나게 된다. 11월에는 랩의 최종단계로 마케팅&배급 랩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각 참가자들이 마케팅 및 배급계획을 업계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얻는다. 랩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IFP에서는 멘토십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밍 스태프들이 연중 상시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의 영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표 8] IFP 필름메이커스 랩 정보

	상세내용
참가조건	첫 장편영화 감독만 지원가능

	모든 촬영이 완료되어 편집중이어야 하며 후반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지원자는 40분 이상의 스토리 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러프컷 제출 의무 1시간 이상의 장편영화 다른 영화제에 제출하지 않은 영화 선호 제작비 1백만달러 이하의 저예산 영화로 배급이 정해지지 않은 영화
선정과정	랩의 커리큘럼 및 멘토십이 영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의해 결정 최종결정권은 IFP의 시니어 프로그래머에게 있음 각 랩당 최대 10편의 프로젝트 선정
일반정보	랩 참가비는 없으나 모든 참가자는 IFP 회원이어야 함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이 프로그램의 모든 섹션에 참가해야 함 영화제작자들은 랩까지의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자비 부담 각 프로젝트당 랩에 참가할 수 있는 팀 멤버는 최대 3명 모든 랩 워크샵은 뉴욕시에서 열림

자료출처: 「Application Details」, 『Labs』, IFP 홈페이지

스크린 포워드 랩은 1년동안 지속되는 시리즈물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으로 타임워너 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이 랩은 모든 플랫폼과 포맷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리즈 프로젝트를 만드는 혁신적인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한다. 이 랩은 1만 달러 상당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1주간의 집중코스를 통해 파워풀한 피칭, 투자유치, 마케팅 및 배급전략 기획에 대해 배운다. 2016년에는 4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뉴욕시의 메이드인 뉴욕 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랩 과정 이 외에도 메이드인 뉴욕 미디어센터에서 6개월간 각종 강의와 워크샵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업계 전문가와 크리에이티브 멘토의 지원도 뒤따른다. 랩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투자자와 디지털배급사, 네트워크 등에 소개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크린 포워드 스크리닝 시리즈에서는 IFP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나 회원들 작품을 대상으로 극장개봉 경험도 제공한다. IFP 소유의 메이드인 뉴욕 미디어센터의 72석짜리 극장에서 일주일간 개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과정에서 영화제작팀은 극장에서의 상영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IFP 스태프들의 마케팅 및 홍보 지원, 필름메이커 매거진에서의 홍보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극장배급과 개봉을 체험한다.

5) IFP의 기타 지원 프로그램

필름워크와 랩 외에도 IFP에서는 독립영화가 각종 단체로부터 기부와 후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정후원(Fiscal Sponsorship)”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자들과 독립영화 프로젝트 사이의 중재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IFP는 프로듀서들에게 국제 공동제작 시장 및 세계 각국 영화제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부모인 영화제작자에게 커리어 지속을 장려하며 수여하는 상금도 있다.

① 재정후원(Fiscal Sponsorship)

기부를 원하는 개인, 재단, 기관 등은 신뢰성 있는 감독기관이 중재역할을 하기 원한다. IFP는 이 재정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기부주체들에게 세금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들은 간편하고 안전하게 IFP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하는 프로젝트에 기부를 할 수 있고,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영화 제작자들은 IFP의 도움으로 보다 원활하게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으며 각종 판권과 관련수익도 보호할 수 있다. 영화제작자들은 또한 비영리기관이나 국고지원프로젝트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재단 혹은 정부의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상금을 수여하는 기관들도 IFP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퀄리티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IFP는 상금지원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이 외에도 IFP 재정후원 프로그램은 또한 재무, 관리, 멘토십 서비스를 저렴한 수수료에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가능한 작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다큐멘터리(혹은 기타 논픽션 작품)
- 저예산 장편 극영화(50분 이상)으로 기부나 상금에 의해 전체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작품이나(보통 300만달러 이하 제작비), 일부 제작비가 모금으로 충당된, 기획개발 단계의 작품.
- 단편(픽션, 다큐멘터리, 실험적 작품 모두 포괄)
- 융합미디어/멀티미디어/VR/웹기반의 프로젝트로 영화/비디오/전자매체가 작업의 주요 요소로 사용된 작품

② 국제적 차원의 지원

IFP에서는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로테르담과 칸느, 인도필름바자 등 각종 해외 마켓과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듀서들을 보내 공동제작 시장에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베를린영화제에서는 미국 독립영화 홍보 스탠드를 운영하며 베니스 비엔날레 컬리지-시네마 프로그램을 통해 초저예산 음악/영상작업 팀을 지원한다.¹⁹

- 로테르담 펠로우십 : 매년 2명의 프로듀서를 뽑아 로테르담 랩(공동제작 마켓도 운영 중)에 참가시키고 있다. 미국인으로 한편 이상의 장편 극영화 제작경험이 있는 프로듀서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로테르담 랩에서는 5일간의 프로듀서 트레이닝 워크샵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IFP에서는 숙박비를 제공한다.
- 칸느 프로듀서 네트워크 : 매년 최대 7명의 독립영화 프로듀서들을 뽑아 칸느 영화제의 프로듀서 네트워크 및 워크샵의 1주일간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후원한다.

¹⁹ International, Programs, IFP 홈페이지

참여 프로듀서에게는 IFP가 숙박비를 지원한다.

- 인도 필름 바자 : 인도의 공동제작 마켓인 인도 필름 바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장편극 영화 공동제작을 장려한다. IFP는 이 마켓에 참석하는 프로듀서의 5일치 숙박비를 지급한다.
- 베를린 영화제 독립영화 홍보스탠드: 미국 독립영화들을 홍보하기 위해 IFP에서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미국독립영화 홍보스탠드를 운영한다. 미국 영화산업과 영화제작자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이 스탠드에서는 미팅장소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 베니스 비엔날레 컬리지-시네마 : 데뷔작이나 두번째 작품을 만드는 초저예산 음악/영상작업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 베니스 비엔날레 컬리지에 참석한 영화들 중 3편에 15만 유로를 지원한다.

③ Durga Entertainment 영화제작자 상금

Durga Entertainment에서 제공하는 이 2만달러의 상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영화제작자로서의 활동을 지속하는 재능있는 아티스트에게 주는 것으로 제작자가 독립영화계에서 커리어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한다.

4. 선댄스 인스티튜트와 IFP의 독립영화 지원사례

1) 메디테레니아(MEDITERRANEA)

2012년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작가 및 디렉터스 랩 참가작으로 한 북아프리카 청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중해를 넘어 이탈리아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을 그린, 최근의 유럽 난민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다. 조나스 카르피그나노(Jonas Carpignano)감독은 선댄스 장편영화 프로그램 디렉터인 미셸 새터(Michelle Satter)와의 인터뷰에서 “선댄스 시나리오 작가랩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3천개의 씬을 가지고 어찌할줄 몰랐을 것이며 랩 덕분에 4시간이 넘는 러프컷을 줄여 지금의 영화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²⁰

[표 9] 선댄스 지원 및 성과 - <메디테레니아>

선댄스 인스티튜트 지원	영화제 참가 및 각종 수상이력
--------------	------------------

²⁰ Project Spotlight, 선댄스인스티튜트 2015년 연례 보고서, 16페이지

2012년 1월 시나리오작가랩	AFI Fest
2012년 6월 디렉터스랩, 시나리오작가랩	칸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주간 월드프리미어
2012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서밋	고담 어워드 혁신적 감독상 노미네이션
2013년 선댄스인스티튜트/마힌드라 글로벌 필름메이킹 어워드	햄튼 국제 영화제
2014년 Catalyst 포럼	원헨 국제 영화제 one future prize 노미네이션
인디안 페인트브러쉬 펠로우십	스톡홀름 영화제
장편영화 펀드	취리히 영화제 남우주연상 특별언급

자료출처: 『Mediterranea-Project Spotlight』, 『Feature Film Program』, 선댄스인스티튜트 2015년 연례보고서

2) (T)ERROR

이 영화는 2013년에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다큐멘터리 펀드(존 D.& 캐서린 T. 맥아더 재단)로부터 지원을 받고 2014년에 다큐멘터리 편집&스토리 랩에 참여했던 작품이다. 2015년 가을에 극장개봉을 하고 2016년 2월에는 PBS를 통해 방영되었다.

[표 10] 선댄스 지원 및 성과 - <(T)ERROR>

선댄스 인스티튜트 지원	영화제 참가 및 각종 수상이력
2013년 다큐멘터리 펀드	Full Frame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대상
2014년 다큐멘터리 편집&스토리 랩	핫독스 국제영화제
2014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랩	휴먼라이트워치 영화제
2014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서밋	Jihlava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5년 선댄스 영화제 경쟁부문	필라델피아영화제 심사위원상
	선댄스영화제 미국 다큐멘터리 심사위원 특별상
	트라이베카 영화제

자료출처: 『(T)ERROR-Project Spotlight』, 『Documentary Film Program』, 선댄스인스티튜트 2015년 연례보고서

3) 더 윗치(The Witch)

이 작품은 선댄스 인스티튜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이니셔티브에 참가했던 작품으로 감독이자 작가인 로버트 에거스(Robert Eggers)의 장편데뷔작이다. 16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만든 대담한 심리 호러물로 개발당시 장편영화 프로그램에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작가 웨슬리 스트릭이 멘토가 되어 지원을 해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지원금을 받았고 Catalyst 포럼에도 참가했다. 선댄스에서는 러프컷 스크리닝을 통해 피드백을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5년 이 영화는 선댄스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월

드프리미어 상영을 가진 뒤 A24에 배급권을 판매되었고 2016년 2월에는 미국에서 극장개봉하여 350만달러의 제작비로 2500만달러의 수익을 거두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표 11] 선댄스 지원 및 성과 - <더 워치>

선댄스 인스티튜트 지원	영화제 등 각종 수상이력
2012, 2013년 장편영화 펀드 지원	오스틴 판타스틱 영화제 심사위원 호러상
2013년 CATALYST 포럼	런던 영화제 서덜랜드상
2014년 장편영화 펀드 지원	뉴햄프셔 영화제 장편영화상
2015년 선댄스영화제 경쟁부문	선댄스영화제 미국 드라마틱 영화부문 감독상

자료출처: 『The Witch-Project Spotlight』, 『Creative Producing Initiatives』, 선댄스인스티튜트 2015년 연례보고서

4) 멤피스(Memphis)

이 영화는 IFP의 프로젝트 포럼 중 장편영화 부문인 No Borders 섹션에 참가했던 작품이다. 감독인 팀 서튼(Tim Sutton)은 그 경험을 이렇게 설명한다. “No Borders에서는 제 두 번째 장편영화 <멤피스>를, 정말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당시 프로듀서인 존 베이커와 저는, 몇 번의 네트워킹 세션에서 영화피칭을 했고 독립영화계의 영향력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배급사인 A24나 에이전시인 WME, 북미 첫 상영을 가졌던 선댄스영화제 분들 말이죠. 마지막 미팅은 베니스 비엔날레 시네마 칼리지와 가졌는데 거기선 펀딩도 해주고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작품개발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했구요. IFP는 제 첫 작품인 <파빌리온>도 필름메이커 랩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이번 작품도 말 그대로 모든 단계마다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나 전략적, 커리어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²¹

<멤피스>는 2014년 카를로비 바리 영화제에 인디펜던트 카메라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사라소타 영화제에서는 인디펜던트 비전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되었다.²²

5) 다이노소어 13(Dinosaur 13)

<다이노소어 13>의 감독인 토드 밀러(Todd Miller)는 2013년 5월에 IFP의 프로젝트 포럼 중 다큐멘터리 부문인 “스포츠라이트 온 다큐멘터리” 섹션에 지원했다. 당시 그는 이 영화를 2년째 작업중이었다. 1990년에 발견된 가장 온전한 상태의 T-rex 화석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밀러가 직접 제작비를 마련했고 감독/프로듀서/편집자를 겸해야 했으며 스태프는 한 명 밖에 없었다. 300시간의 영상물을 혼자서 편집하다가 밀러는 첫 50분의 러프컷을 IFP에 제출했다. “스포츠라이트 온 다큐멘터리” 섹션에 선정된 50편의 다큐

²¹ 『Filmmaker Testimonials-Project Forum』, 『Independent Film Week』, IFP홈페이지

²² IMDbPro 참조

멘터리 중 하나였던 <다이노소어 13>은 이들 영화에 관심이 있던 업계 최고 수준의 세일즈 회사와 배급사, 방송사, 그리고 투자자들과 대략 서른개의 미팅을 가질 수 있었다.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전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세일즈사를 찾는거고 다른 하나는 주요 영화제에 진출하는 거였죠.” 밀러는 필름위크동안 영화의 미래를 결정할 두가지 만남을 가졌다. 하나는 인더스트리 미팅에서의 서브마린 엔터테인먼트의 조쉬 브라운과 만난 것이었는데 그는 밀러와 그의 영화 클립에 꽤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필름위크 이후 일주일 안에 이들은 함께 작업하기로 합의한다. “프로그래머와의 만남”에서 밀러는 선댄스 영화제 시니어 프로그래머인 데이비드 쿠리에르를 만난다. 그는 <다이노소어 13>의 클립을 본 후 가능한 빨리 전체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격려한다. 이후 쿠리에르는 선댄스 프로그래밍팀 내에서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선댄스 영화제 출품되어 개막일 상영작 중 하나로 결정되고 나서, 밀러와 제작팀이 파크시티에 도착하자 여러 회사가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시사회가 끝나자마자 협상이 시작되었고 라이온스게이트(미국 극장배급권)와 CNN 필름(미국 방송권)이 공동구매하기로 결정되었다. 런던에 본사를 둔 Dogwoof는 그 주말, 전세계 세일즈권을 구매해갔다.²³ 2014년 8월에는 미국에서 극장개봉도 했다. 이 영화는 2014년 선댄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심사위원 대상에 노미네이트되었고 블랙힐즈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장편부문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뉴스&다큐멘터리 에미상 과학 및 기술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²⁴

6) 컨커션(Concussion)

<컨커션>의 감독인 스테이시 파손(Stacie Passon)은 2012년 IFP 극영화 랩에 참가했다. 그녀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IFP 극영화 랩은 집중도가 높은 1년간의 몰입과정이었어서 영화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랩 덕분에 우리 제작팀은 업계의 책임자들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죠. 혁신적이고 깊이있고 영감을 주는 과정이었어요. 이 랩에 참여하게 된다면,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영화산업을 보는 관점이 통째로 바뀔겁니다.”²⁵ <컨커션>은 2013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테디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영화제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13년에는 RADIUS-TWC의 배급으로 극장개봉을 하기도 했다.

²³ 「Filmmaker Testimonials-Project Forum」, 『Independent Film Week』, IFP홈페이지

²⁴ IMDbPro 참조

²⁵ 「Filmmaker Testimonials」, 『Independent Filmmaker Labs』, IFP홈페이지

5. 나오는 말

할리우드 주류 영화가 틀에 갇혀 비슷한 상품을 찍어낼 때 미국 독립영화계는 1992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컬트영화 <저수지의 개들>부터 2016년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국가의 탄생 The Birth of a Nation>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작들을 만들어내었고 관객과 평단의 지지를 받아왔다. 더군다나 최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과 맞물려 콘텐츠에 목마른 디지털 플랫폼들과 메이저 배급사들까지도 경쟁적으로 독립영화들의 “쇼핑”에 나서면서, 일부 독립영화들은 몸값이 매우 뛰어올랐다. 올해 초, 폭스 서치라이트는 <국가의 탄생>을 선댄스 영화제 역사상 최고가인 1750만달러에 구매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다. 올해 선댄스에서 이 외에도 <맨체스터 바이 더 씨 Manchester by the Sea> 가 1천만 달러에 아마존에 팔렸고 <펀더멘탈 오브 케어링 The Fundamentals of Caring>은 7백만달러에 넷플릭스가 가져갔다.

이렇게 독립영화가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는다는 지난 30여년간 아티스트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이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온 선댄스 인스티튜트와 IFP의 존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1월의 영화제를 통해, IFP는 9월의 필름워크를 통해 독립영화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으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이 운영하는 랩과 워크숍에서는 기성 감독과 작가들이 멘토가 되어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선댄스 인스티튜트와 IFP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들 아티스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산업계 종사자들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특히 이는 필름워크를 운영하는 IFP가 가지는 강점이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영화를 피칭하는 방법부터 마케팅과 배급전략까지, 비즈니스적인 기술을 영화 제작 과정과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들이 비영리 기관임에도 이런 큰 규모의 랩과 지원금, 워크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재단, 정부기관 및 개인들의 넉넉한 후원 덕분이다. 2016년 6월 10일,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아카데미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네이티브 아메리칸 프로그램과 시나리오작가들의 소수집단 대상 펠로우십에 각각 17,500달러와 2만달러의 상금을 새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²⁶ 소외계층의 목소리에도 아낌없는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 독립영화계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²⁶ Sundance Institute Receives Academy Grants to Support Artist Development Programs for Underrepresented Filmmakers, Sundance Institute 보도자료, 2016년 6월 10일